



#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8호 / 2026년 08월 04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 정몽원 회장님! 지금 해외로 나갈 때입니까?

- 생산보다 먼저, 회장이 직접 재발방지 대책을 행기시기 바랍니다.

하기휴가 기간입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휴가기간임도 불구하고 철의노동자를 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노동자가 우리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지 벌써 14일째입니다.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고, 긴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파행으로 멈춰 섰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사측에게 묻겠습니다. 생명보다 생산이 먼저입니까?

사망사고 중대재해 이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이 외주업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인터록 등 설비 조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주 토요일과 이번주 월요일에 걸쳐 두 차례 시도 했고, 지부와 평택지회 간부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설비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산보위 안전으로 안전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비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은 안전보다 생산 재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생산이 먼저라면, 이번 사고는 또 다시 반복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조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제 조성현 부회장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조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유가족이 원하는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상태로 무조건 말로만 사과하고, 조문부터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가족이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같은 이유로 또 죽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도 이와 같습니다.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가 먼저입니다. 조문은 그다음입니다.

## ■ 정몽원 회장님! 이제 직접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청소 노동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도 아니고,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에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나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가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어떤 책임을 보여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29살 청년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정몽원 회장이 이번주 해외로 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묻고 싶습니다. 지금 노동자의 죽음 앞에 조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정몽원 회장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조문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회장이 직접 유가족을 찾아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 분명하게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을 배제한 일방적인 설비 변경 중단과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외 일정이 아니라 그룹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 □ 노동조합은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휴가 기간이지만, 지부 지회 간부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장이 조합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